



2025년 5월호

대나무 바람 머무는 죽절마을

훈남재가 한층 짙어진 오월의 소양면 죽절마을. 시원한 바람에 산 아래 대나무 잎이 사바사바 흔들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밭을 움직였다. 겨울 빨감 마편, 밭에 심을 모종 손질, 논에 물 대기까지 이맘때 농부들의 일은 끝이 없다. 고참이든 신참이든 포르는 건 서로 물어보고 손을 보태다 보면 못 해낼 일이 없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실명: 왼쪽부터 이귀순, 이부흥, 소병례, 박정자, 부녀회장이 마을회관 앞 의자에 앉아 웃고 있다.

- 치유농장의 꿈, 꿈드림 ... 8P
- 3년만에 아이 울음 동상면 들썩 ... 9P
- 삶의풍경 만경밴드 강영희 이야기... 10P
- 일러스트레이터 최세령 작가 ... 12P



생활도자기 수업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빚은 국수그릇을 들고 웃고 있다.

회돌아 마을 한 바퀴

대나무가 지천이던 조경에 으뜸인 동네

한때 대나무가 지천이던 마을이라 ‘죽전(竹田)’이라 불렀고 시간이 흐르며 지금의 ‘죽절’이 되었다. 그 대밭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마을은 바람 한번에도 사박사박 속삭인다. 요즘 죽절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밭일을 시작했다. 삽 한 자루 챙겨 밭으로 나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에서 부지런한 봄이 느껴진다. 날은 제법 더워졌고 흙냄새도 진해졌다. 고요한 하루 속에서 계절도 사람도 그리고 땅도 다시 깨어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사람들

회관 앞에서는 한 어르신이 나뭇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이라 겨울 준비로 장작을 미리 장만하는 중이었다. “나무가 땀땀해야 오래 땀다. 물렁하면 금방 꺼진다. 장작은 사람이랑 똑같다. 속이 짝 차야 오래 간다”고 말하는 어르신의 구수한 말투와 장작을 하나 하나 들춰보는 손끝엔 오랜 경험이 묻어났다.

한바탕 즐거운 수다를 마치고 잠시 밖으로 나온 어르신들도 마주쳤다. “집 안에 있으면 심심하기만 하니까 마을회관에 자주 모여 논다”고 웃은 이부흥 어르신에게 죽절마을의 요모조모를 물었다. 그는 “조영임씨 시조가 처음 자리 잡은 마을이라 임씨가 많고, 철쭉과 소나무 등 조경이 발달한 곳”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흥 어르신은 죽절마을 사람들이 솔직해서 좋다고 한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도둑놈 소리 안 듣고 살면 그게 좋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덕망 있는 마을로 불렸어.”

푸릇한 잎 거두고 눈에 물 대러 가야지

마을회관 뒤편의 텃밭에서는 유경님(90) 어르신이 하지감자 순을 따고 있다. 경님 어르신은 “춘은 별 뜨거워도 일 안 하면 못 산다. 하지감자 심은 지 4~5년 됐는데 올해도 잘 되면 좋겠다. 날이 뜨거워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비 온다니

오늘 다 끝내야 한다”고 웃었다. 순을 따줘야 감자가 굵게 자란다고 그가 허리도 펴지 않은 채 덤덤히 일하는 사이 바로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이종구(90) 어르신이 바닥에 자란 풀을 매느라 바빴다.

“농한기 동안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필요하지. 원래는 여기서 모판을 재배했는데, 옛날이랑 달리 여덟 마지기밖에 안 해서 모종을 사다가 심고 있어.”

죽절마을 토박이라는 종구 어르신은 마을 이름의 유래도 들려주었다.

“대나무 ‘죽’, 마디 ‘절’이라고 해서 죽절마을이야. 지금은 산밭에 주로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 이곳저곳에 대나무가 많았거든. 대나무가 많아도 그걸로 공예품을 만들지는 않았고 온실을 지을 때 필요한 철제 기둥이 흔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대나무를 끊어서 활대로 만들어 세웠지.”

오전 10시부터 밭일을 시작한 부부는 점심 식사



후 더위가 몰려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선다. 경남 어르신은 오늘 내로 하지감자 손질을 끝내고 중구 어르신은 산 밑 논에서 방수 작업을 할 예정이다.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논두렁에 방수포를 덧대고 풀이 자라지 않게 하는 가루도 뿌리는 등 앞으로 농부에게는 바쁠 일만 남았다.

죽절마을의 골목이 품은 봄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던 길에 공공근로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남우희(78), 조영례(69), 이승례(78) 어르신을 만났다. 세 어르신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정도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다. 승례 어르신은 “죽절마을부터 소양면사무소까지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다”며 “너무 먼 거리도 아니고 햇볕이 약한 오전에 일하니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움직이며 운동도 되고 손주들이 왔을 때 간식 사줄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한다는 게 보람이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발걸음을 계속 옮기면 죽절마을만의 아기자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파란 지붕의 집 담벼락에 기대 고양이와 햇볕을 쬐는 임병국 어르신. 작은 개울가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 담장 너머 피어난 흰 수국과 분홍빛 철쭉.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치는 댓잎 소리에 귀 기울

위부터_ 생활도자기 수업에서 그릇을 빚는 손길, 공공근로에 참여한 어르신들, 한 어르신이 모은 화목보일러용 떨감, 풀을 매다가 쉬는 이종구 어르신, 임병국 어르신과 고양이.



을이다 보면 어느새 죽절마을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게 된다.

생활도자기 수업 덕에 특별해진 월요일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이어지는 생활도자기 수업이 마을회관에서 열린다. 4월 28일 이날은 바로 국수 그릇을 만드는 날이다.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손끝에 집중하며 흙을 다뤘다. 그릇의 형태를 잡는 데 필요한 섬세한 힘을 주며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았다.

생활도자기 수업은 완주군의 마을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이 활동은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며 마을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지방 보조금 보탬e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어르신들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주마을통합마케팅센터 광역사무장이 전반적인 지원을 맡아주면서 마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수업은 단순한 만들기 체험이 아니다. 흙을 다룬 후 그릇은 가마에서 두 번 굽는 사이 건조 과정, 사포 작업, 유약 과정이 이어진다. 그 후에는 다시 가마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도자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완성된 그릇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자기를 만들 때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흙은 친환경 소재로 세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작은 숨구멍을 통해 세제가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자기 체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물레를 돌리며 어르신들은 마치 도예가처럼 한 점 한 점 그릇을 완성해 간다.

수업에 참여한 이귀순(82) 어르신은 “세트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예뻐 것 같다”며 웃었다. 소병례(85) 어르신은 “손으로 직접 빚어서 정이 가고 쓸 때마다 내가 만든 거라 더 소중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정님(90) 어르신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다”며 다음 수업을 기대했다.

생활도자기 수업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하나하나가 마을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



아삭아삭 신선한 우리 집 적상추 맛이 제일!

상추 농사 20년 베테랑 윤연옥 씨

윤연옥 씨가 직접 재배한 적상추를 들고 웃고 있다.



죽절마을 한가운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네 동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싱그러운 적상추가 자라고 있다. 20년째 상추 농사를 이어온 윤연옥(69) 씨는 “우리 적상추가 제일 맛있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파란 상추는 죽절마을 토질에 맞지 않아 적상추만 기른다”는 연옥 씨는 지난 겨울에 심은 상추를 몇 번 더 따고 나서 뿌리째 뽑을 예정이다. 줄기가 너무 굵어지면 상춧잎의 연한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추를 없앤 자리에는 열무나 배추를 심는다.

봄 햇볕으로 가득 찬 비닐하우스 안에서 벌레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렵다. 장마 전의 상추는 물만 주어도 잘 자란다.

“더 더워지거나 장마철이면 벌레가 생기지만, 그러기 전에는 벌레가 없어서 약 한 번 안 주고 유기농으로 기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적당한 양의 물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치의 물을 바닥에 대줄 수도 있고, 위에서 기계로 뿌리기도 해요. 보름에 한 번 물을 챙겨주고 있어요.”

20년 연륜이 묻은 손길로 시범을 보이는 연옥 씨로부터 상추 따는 법을 배웠다. 가장 먼저 물을 넓게 뿌려서 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물방울이 맺혀 더욱 싱그러운 상추의 큰 잎만 밑으로 돌려

따면 줄기가 끊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좋다. 설명은 간단해도 부드러운 상춧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게다가 4kg이 될 때까지 상자를 가득 채워야 한다. 물론 베테랑인 연옥 씨는 한 상자를 채우는 데 30~40분이면 충분하다.

상추 농사를 오래 지은 만큼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도 했다. 매년 돌아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병충해가 걱정되어도 “남의 집 돈벌이 안 나가고 내 용돈 벌 수 있으니 좋다”며 지은 그의 미소에서 깨끗한 삶의 태도가 보인다.

연옥 씨 부부가 아침저녁으로 수확한 상추는 전주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가판대에서 팔리거나 식당에 납품된다. 특히 모래내시장 단골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네댓 상자를 주문할 만큼 인기가 많다.

쉬는 시간에는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어울리거나 집안일을 챙긴다는 연옥 씨는 이번 연휴, 본가에 방문할 딸을 기다리며 들떠있다. “딸이 어릴 적부터 상추 농사를 거들어서 지금도 상추를 잘 따다”고 자랑한 그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을 기대하며 웃었다. 🌱

스물 다섯에 만난 구순 동갑내기 오순도순 살아온 세월이 65년

이종구-유경님 어르신

죽절마을에서 마주한 이종구(90), 유경님(90) 부부는 올해로 결혼 65주년을 맞았다. 스물다섯에 만나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잉꼬부부로, 서로를 의지하며 세월을 견뎠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종구 어르신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마을 풍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농사 끝나면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도 한잔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산꼭대기에서 달집도 태우고 풍장도 치고. 나는 징재비(두레패 따위에서 징을 치는 사람)였어, 징을 막 쳤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그때는 품앗이도 일상이었다. 그는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엔 사람 손이 최고였다. 집마다 돌아다니며 김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결혼 이야기도 정겹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음력 9월 9일은 종구 어르신이 무엇보다 또렷하게 기억하는 날이다.

“그땐 예식장이 따로 없어서 집 마당에서 했어. 마을 남자끼리 ‘사모관대 계모임’이 있어서 혼례복도 서로 돌려 입었지. 그때는 혼례복이 무척


비싸서 계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옷을 같이 입고, 계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돈 받고 빌려주고는 했어.”

결혼은 부모들이 선을 보고 정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그제야 여자 쪽에서 남자 집을 둘러보는 식이었다. 농촌에 살아도 집이 깨끗하고 크게 잘 지었으면 괜찮은 집안이라고 평해졌다. 종구 어르신 또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328평이나 되는 현재 집터를 마련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다. 그렇게 현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나면 두 사람의 사주팔자를 살펴서 궁합이 좋으면 혼례가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축의금 대신 형편에 따라 국수나 달걀 한 줄을 챙겨오는 게 관례였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둘러보니 6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보인다. 손재주 좋은 경님 어르신이 그린 꽃 그림과 손수 모은 도자기, 여행에서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 등 차곡차곡 쌓인 부부의 추억이 눈에 들어왔다.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우리 둘이서 잘 의지하고 사니 자식들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며 웃은 경님 어르신은 “이번 연휴에 큰아들네와 여수

로 1박 2일 여행도 간다”며 자랑했다.

한평생 죽절마을에서 손잡고 살아온 구순의 부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바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감자 잎을 숙다 환하게 웃는 유경님 어르신, 유경님 어르신 작품, 노인지도자교육 수료 기념 사진, 손재주 좋은 경님 어르신이 담근 장들.



삶을 확인받는 공간, 밭 흙을 만져야 마음이 편안

임병록 어르신

밭을 일구는 임병록(79) 어르신은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밭에 나선다. 해가 조금만 올라와도 모자 깊이를 눌러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모종을 손질한다. “밭일은 내 몸이 아는 일이며, 움직여야 살겠어.”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에 오늘은 부지런히 심어야 한다며 새벽부터 밭고랑을 뒤적였다.

요즘 어르신이 특히 애정을 쏟는 건 노란 꽃 피는 황매화(黃梅花)다. 작년 봄 밭 한쪽에 묘목을 심어 올해 두 번째 봄을 맞았다. 황매화는 손이 덜가는 대신 인내심이 필요한 작물이다. “물이 많은 걸 싫어해. 더위도 끄떡없고 비만 너무 안 오면 돼. 3년쯤 키우면 팔 수 있지.” 어르신은 이 꽃을 두고 ‘속 편한 작물’이라 부른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조금해하지 않고 꽃이 피는 그날까지 묵묵히 돌본다.

과거에는 철쭉도 가꿨다. 분홍빛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던 철쭉은 보기 좋았지만 일이 많았다. 해마다 손이 더 가면서 언젠가부터는 지친다는 생각이 앞섰다. “철쭉은 곱지만 나한테는 이제 무리야. 이제는 실한 거 먹을 거만 하자고 마음 먹었지.”

그래서 어르신 밭에는 지금도 참깨, 들깨, 생강,

쪽파 같은 작물이 자라고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닌 먹을 만큼 농사짓는다. 손자들과 며느리 자식들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들이다. “내가 길러서 내가 먹고 식구들 나눠주는 맛이 최고여.”

밭은 어르신에게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계절을 느끼고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흙을 만지고 날씨를 살피고 식물의 숨결을 느끼는 일이 매일 이어지는 삶의 리듬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가고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죽절마을의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사람이 줄어들었어. 밭도 놓고 빈집도 많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럴수록 밭을 더 다듬는다. 흙이 있어야 하루가 편하고 밭일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 도시에서 지내는 자식들이 고생 말라며 손을 놓으라 해도 어르신은 고개를 젓는다.

“밭일이 고되긴 하지 그래도 이게 내 건강이야. 안 움직이면 몸이 금방 상해.”

밭을 일구며 살아온 시간만도 60년이 훌쩍 넘었다. 황매화처럼 물이 많지 않아도 깨끗하게 자라난 인생. 마을과 땅 가족과 함께 쌓은 시간은 고요하지만 단단하다. 어르신은 오늘도 천천히 계절을 심는다. ④

7년 차 일당백 이장

최명자 이장

죽절마을에서 45년을 살아온 최명자(71) 이장은 꽃을 심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챙기고 조경 일을 도맡는, 7년 차 ‘일당백’ 이장이다.

죽절마을에 대해 소개해달라

대략 50가구가 사는데, 그중 46~47가구가 고향 사람들이야. 몇몇은 전주 시내로 다니며 출퇴근하기도 하고. 옛날엔 정말 시골 같았지. 새벽마다 남문시장에 나가 농산물 내다 팔면서 살았어. 80년대에 마늘, 당근, 상추, 옥수수 같은 걸 많이 키웠고 새마을운동 이후 살기 좋아졌지.

꽃을 가꾸는 마을로 알려져 있던데?

내가 90년도부터 꽃나무, 특히 철쭉을 마을에 심기 시작했어. 처음엔 다들 “이걸 왜 하나”는 반응이었지. 그런데 조금씩 소득이 생기니까 점점 관심을 갖더라고. 한때는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철쭉으로 수익을 냈지. 지금은 예전만큼 하진 않지만 그 시절 덕에 마을 분위기도 확 달라지고 다들 자신감을 갖게 됐어. 철쭉이 우리 마을에 한번 큰 숨을 불어넣어준 셈이지.

복지나 마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고 들었다

이장협의회 통해서 직접 사업 알아보고 따오기도 했어. 특히 치매안심센터랑 연계해서 노래교실, 만들기, 도자기 수업도 하고. 지금 하는 도자기 수업은 마을통합마케팅센터 이은주 광역사무장님이 도와줘서 한거야.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해.

이장님의 바람이 있다면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 없이 예쁘게 늙어갔으면 좋겠어.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마음도 편해지잖아. 그게 내가 이장으로서는 제일 바라는 거야. 마을 어르신들 잘 모시고 이쁘게 살아가게 해드리고 싶어. 그냥... 이쁘게 갔으면 좋겠어.



은퇴 후 귀촌 4년째 3대가 붙어사니 마음이 든든해



새내기 농부 김기열 어르신

마을 초입,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밭에서 멀칭 작업을 마친 김기열(80) 어르신을 만났다. 닭장 안에서 막 꺼낸 따끈한 달걀 두 알을 쥐어주며 활짝 웃는 모습에, 초보 농부의 풋풋함과 인생 선배의 너그러움이 함께 묻어났다.

전주 서신동에서 나고 자라 건설업에 몸담았던 기열 어르신은 은퇴 후 할머니의 집이 있던 죽절마을로 귀촌했다. 어느덧 귀촌 생활 4년 차, 바로 옆집에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딸네 식구가 살고 있으니 적적할 틈이 없다.

“가까우니까 좋지. 바로 옆에 손주들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래.” 등교와 출근으로 시끌벅적한 아침이 지나고, 오전 10시쯤 기열 어르신은 밭으로 나와 하루를 연다. 햇볕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멀칭 비닐을 다 덮었고, 조만간 고추 모종을 사서 심을 예정이

다. 고추밭 바로 옆에는 닭 스무 마리가, 딸네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는 감자를 기르고 있다. 귀촌해서 남들 다 겪는다는 시행착오 없이 혼자서 어떻게 농사짓는지 묻자,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해보니까 잘 되더라”며 웃었다.

“농사는 전혀 몰랐지. 그래도 여기로 이사 왔는데 일단 시작했어. 주변에 초심자가 하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마을 돌아다니다가 농사짓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지. 모르는 건 끄꿍 앓고만 있지 말고 시원하게 물어봐야 해.”

농사는 작은 규모라고 해도 만만치 않다. 기열 어르신은 “농사도 젊었을 때 지어야 한다.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나이 먹고 농사지으면 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매일 텃밭을 살피고 닭을 보살피는 이유는 맛있게 먹을 가족들의 얼굴 때문이다.



“고구마 다 크면 와, 쪼줄게...” 팬시리 서럽더니 젊은이들 보니 좋네

양점례 어르신

양점례(80) 어르신은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고 밭으로 향했다. 집에서 6분 거리인 자주 다니는 길이다. 오늘은 깨를 심기 위해 땅을 살펴보고려고 한다. 비가 온 다음이라 질척한 흙이 삼에 잘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허리와 무릎이 육신거리긴 하지만 몸을 일으켜 밭으로 향했다.

“요새는 그냥 먹을 만큼만 심어. 생강, 파도 있고 이제 깨 좀 심을라고. 고구마 씨도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좀 사야지.”

죽절마을에 시집온 건 스물셋. 전주에서 남편 따라 내려온 지 벌써 57년째다.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아들 하나, 딸 넷.

“그땐 다들 그랬어. 딸 낳으면 한숨 쉬고 아들 낳아야 대접받고. 그래서 자식이 많아진 거지 뭐. 막내가 아들이야.”

자식들은 모두 자라 가까운 전주에서 산다. 셋째 딸만 서울에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하

지만 유독 오늘은 마음이 더 서러웠다.

“전화 한 통도 없으니 오늘은 괜히 마음이 좀 그랬어. 아침에 그냥 하염없이 기도를 했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쭈시고. 그래서 그랬나 봐.”

그러던 찰나 마을에 찾아온 기자 일행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어르신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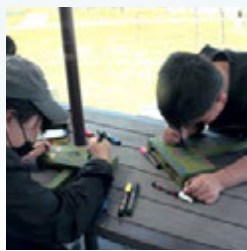
“오늘 좀 서러웠는데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 기분이 나아지네.”

젊어서는 철쭉을 나무째로 키워내는 일도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만두었다.

어르신의 하루는 평일 두세 번 노인일자리를 마친 후 어김없이 밭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 밭은 산 아래에 있어서 고라니가 자주 내려와서 작물을 심으면 바로 망을 쳐야 해. 안 그러면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거든. 고구마 다 자라면 와, 내가 쪼줄게.”





치유농장의 꿈, 꿈드림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꿈드림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 꿈드림(이하 꿈드림)은 ‘농업’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그 가능성을 확장해가고 있다. 단호박 재배를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에 힘써왔으며 2021년부터는 ‘본앤하이리’라는 이름의 농촌카페를 열어 지역민과 방문객이 농업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왔다. 특히 꿈드림이 중점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농촌 돌봄농장은 올해로 운영 5년 차에 접어들며 지역 내 의미 있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이 농촌돌봄농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작업 체험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농업을 접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꿈드림은 이 농촌돌봄농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치유와 돌봄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꿈드림이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7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한 완주중학교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완주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며 발달장애 청소년들과의 꾸준한 만남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농업 교육을 넘어 자연 속에서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고 일부 졸업생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농업에 기반한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꿈드림의 농촌돌봄농장 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 체험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 지역을 넘어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외부 기관에서도 꿈드림을 찾아와 함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이 가진 치유와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려는 발달장애 청



농촌돌봄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산중 아이들과 정선진 대표가 손을 흔들고 있다.

소년들의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선진 대표는 “전북농촌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농업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였는지 모른다”며 “이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농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립의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이가 농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꿈드림은 앞으로도 치유농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농업을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정보

대표자 : 정선진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52-5

“네 살 성광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상면 원신마을 박태형-가예나 부부, 3월 득남... 3년 만에 동상면서 아기 태어나 '경사'

윤슬이 아름다운 대아호를 따라 굽이굽이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농촌유학센터와 수련관, 그리고 박태형(42), 가예나(28) 부부의 보금자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농촌유학센터 교사로 만난 두 사람은 2020년에 결혼한 후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첫째에 이어 둘째를 품에 안은 부부는 신월리 원신마을을 넘어 동상면 전체에 따뜻한 기쁨을 선물했다.

Q. 둘째 아기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아이 이름과 뜻, 누가 지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박태형 씨 첫째는 성광이(4살), 둘째는 은광이(생후 55일)입니다. 두 아이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셨고, 기독교 신앙을 담아 ‘거룩한 빛(성광)’, ‘은혜의 빛(은광)’이라는 뜻이에요.

Q. 동상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라고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가예나 씨 마치 본인 일처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어요. 출생신고도 동사무소 직원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며 신기해했고, 이웃들도 손주 생긴 듯 기뻐하셨죠. 동상면을 이어갈 새 생명의 탄생이라며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했어요. 은광이의 100일 하루 전, 농촌유학센터에서 잔치를 열어 마을 분들과 기쁨을 나눌 예정이에요.

Q. 도시에서 이주해 동상면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첫 시골생활에 어떻게 적응했나요?

태형 씨 1997년에 아버지를 따라 이 마을에 들어왔고, 2009년부터는 세대주가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대전에 살던 아내의 지인의 소개로 농촌유학센터에서 일하게 됐고, 결혼 후 이곳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어요.

예나 씨 솔직히 첫 1년은 아주 힘들었어요.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없고 운전면허도 없던 때라 교통이 불편했고, 병원이 멀어서 아플 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이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감기 같은 전염병도 잘 안 걸려서 점차 만족하게 됐습니다.

Q. 도시와 비교해 시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태형 씨 여기서는 일 끝나고 여가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사계절이



둘째 아이를 낳아 동상면 전체에 기쁨을 선사한 박태형, 가예나 씨 가족.



네 살 성광이

성광이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 ◆ 밭에서 경주차 튜브 타고 놀기
- ◆ 동요, 특히 '알쏭달쏭' 부르기
- ◆ 산 위에 있는 회견그네 타기
- ◆ 포도주스와 쿠키, 우영조림

뚜렷하고 벚꽃, 단풍, 설경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일상에 녹아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자연에서 오감 놀이를 하며 자극적인 환경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곳에서 살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나 씨 성광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아 뿌듯해요. 다만 올해 유치원에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도 없어 아쉬워요. 소식지에 실린 이야기를 보고 성광이 친구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웃음).

Q. 동상면처럼 젊은 인구가 드문 시골 마을에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태형 씨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통, 의료 등 환경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에요. 완주군은 농사를 지어야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커요.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종이나 창업, 교육,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면 더 많은 청년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귀촌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나 씨 시골학교는 아이 수가 적어서 더 밀도 높은 교육이 가능해요. 동상초등학교만 해도 전국 100대 학교에 선정될 정도로 교육환경이 훌륭하고, 교장·교감 선생님이 전교생 이름을 모두 외울 만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깊습니다. 이런 환경을 많은 분이 직접 경험해보고, 가능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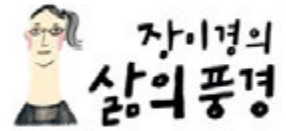
Q. 앞으로 이 마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시나요?

지금처럼 유학센터에서 교사로 일하며, 소소한 농사를 짓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보다는 자연과 사람 속에서 배려를 배우며 인성을 키우길 바랍니다. 결국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진짜 차별점은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
섬광을 보았다*

* 요нас 메카스 영화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 섬광을 보았다'



만경밴드 대표 강영희 이야기

완주군 소양면 종남산을 휘돌아 가는 길옆에 그가 일군 숲이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집과 일터를 오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가을이면 빨갭게 익어가는 감나무와 여름이면 짙은 녹색을 품은 나무들이 늘 좋아 보였다.

강영희 씨(1951년생)는 20년 전 밭자리였던 이곳에 터를 잡고 빨간 벽돌집을 지었다. 소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매실나무, 벚나무, 철쭉, 수국 등이 피어난 강영희 씨의 마당은 정원보다는 숲에 가깝다.

“언젠가 시골 가서 살면 내가 심고 싶은 나무 실컷 심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사 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20년이 지나니까 숲이 되었어. 너무 우거져서 좀 베어냈죠. 우리 집에 없는 나무가 없어. 울 안에다 큰 나무 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심고 싶었던 나무를 실컷 심었어요.”

정착해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청년

“오 형제 중에 제가 셋째예요. 부모님이 ‘이번에는 딸을 낳겠지’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아들을 낳아 버린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강영희’가 된 거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놀렸지. 1학년 입학하면 국어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겠어요? 영희야, 철수야 학교가자잖아.”

강영희 씨는 군산 옥구군 나포면에서 태어나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1년마다 전학을 다니느라 께복쟁이 친구가 없는 것이 늘 못마땅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낳으면 한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아 결혼 후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5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1년 동안 일한 돈을 모아 전주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모든 것이 사막에서 흘린 땀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 뿌듯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겨울, 눈 대신 차가운 뉴스가 쏟아졌다.



강영희 씨가 직접 가꾼 정원에서 웃고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발을 일구고 숲을 가꾸다

강영희 씨는 그 당시 과장 직급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조기명퇴를 선택했다. 지인의 대출 보증을 썼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결국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영희 씨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퇴직금으로 보증금을 다 갚고 그때부터 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했지. 2년 동안 나 혼자 먹고 자고 예수병원에서 버텼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나중에 집으로 모셔왔지. 중환자실에 있던 장비들을 구입해서 방 한 칸에 들여놓고 간호를 했어. 딱 6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 장례 치른 뒤에 어머니 계시던 방에서 자려고 하니깐 힘들더라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주물러드리고 씻겨드리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우울증이 생

기더라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랬지. 집사람도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래서 연고도 없는 완주 소양으로 이사를 온 거지.”

완주살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장비 관련 자격증과 산림·조경기능사 자격증 덕분에 고산자연휴양림 내 식물원 온실의 조경 관리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꼬박 8년을 근무했다.

강영희 씨는 평소 책을 즐겨 읽는 편도 아니었고, 글을 써 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일하던 중 비가 내려 일을 멈추고 평상에 앉아 쉬던 순간,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감정을 따라, 조경 근무 일지를 적던 수첩에 난생 처음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018. 8. 31. 금요일. 비

그칠 줄 모르는 줄기찬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저 빗줄기처럼 힘차게 살아오면서 빗줄기도 언젠가는 그치는 것 같이 우리네 인생의 종착역도 그러하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공간에서 인생의미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일 때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던가. 가거라 세월아. 멈추지 않는 시간아. 나는 이 순간의 마음을 간직하고 영원을 향해 가리라.

“자식들이나 집사람한테 종종 메시지를 보내는데 가족들이 감동해서 울기도 해요. 시인 같다고, 아버지 시집 내드려야 한다는 말도 하고.”

인생의 길목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섬광을 발견한 순간

먹고 사느라 바빴던 남자는 애뜻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무를 가까이했다. 예순이 넘어서야 마음속에 일렁이는 것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다.

저녁 7시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살이에서 찾아낸 것은 색소폰이었다. 우연히 들었던 색소폰 소리가 좋아 무작정 악기를 사고 학원을 다니며 음계공부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2023년 고산면의 하나뿐인 실버밴드 ‘만경밴드’가 탄생했다. 총 12명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60~70대. 만경밴드 멤버들은 각각 드럼, 색소폰, 기타, 보컬을 담당하며 늘 화려한 의상으로 등장해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요양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시골 장터, 마을 축제 등 모든 곳이 그들의 무대이다. 개성 넘치는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강영희 씨다.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대표가 된 건 아니에요. 나는 조용한 리더가 되기로 했죠. 뒷바라지하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연륜이 있으니 그동안 먹고 사느라 못했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밴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나는 타인에게 표본이 될 정도 아름답거나 헌신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활신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왔다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하루 중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죠. 대부분은 그것을 발견 못 하지. 나는 계속 찾고 발견하고 싶어요.”

우리도 인생의 조각 중에 분명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강영희 씨가 가꾼 정원이자 작은 숲, 매일 아침 색소폰 연습을 한다. 그래야 손이 굳지 않는다.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조경관리일을 하며 기록한 근무일지.

완주의 문화 예술인들

09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 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예술인을 소개한다.

지칠 줄 모르고 나아가는 길

#디지털드로잉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인스타툰 #로고

일러스트레이터 최세령



목련꽃이 피기 시작한 3월 봄날이었다. 거짓말처럼 눈이 쏟아지는 오전, 최세령 작가의 봉동 작업실 '스튜디오 해봄'을 찾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줬다. 작업실에 놓인 그림들이 익숙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년 전 동네 책방 전시회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우연이!

몇 년 전 동네 책방에서 작은 그림 전시가 열렸다. 반가운 마음에 그림 구경을 갔고 나무 액자에 담긴 그림들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키가 큰 나무숲, 유난히 높은 하늘,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언덕, 그 풍경들 속에 언제나 혼자 앉아 있는 소녀에게 오래도록 눈이 갔다. 늘 혼자 있는 소녀가 외로워 보이 다가도 나도 그 곁에 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소리가 스치는 것 같고 작은 물웅덩이에 새들이 내려앉아 푸드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풍경에서나 혼자 있는 소녀가 순간들을 충만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Q. 2021년 작가님 첫 전시회 제목은 '시골소녀의 사생활'이었죠. 저도 그 전시회에서 작가님의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만. 첫 전시를 통해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만났던 그때 이야기가 궁금해요.

A. 고산면의 독립서점 '베르'에서 처음 전시를 한

답아내고 싶었어요. 무언가 표현하고 싶었던 갈망의 시작은 그 숲 속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하루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 숲 속 아지트에 앉아 구름, 시냇물, 나뭇잎을 몇 시간씩 보기도 했죠. 혼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자연소재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싶었어요.

Q.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꽤 오랜 시간 품었다가 드디어 발현하게 되었네요.

A. 맞아요. 제 나이 마흔 살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오랜 시간 홀로 작업한 뒤에 전시를 시작하는데 저는 좋은 기회로 전시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선보이고 난 후에는 저 스스로 계속 길을 찾아야 했어요. 미술 전공자에 대한 부러움, 목마름이 있

힘을 얻고 있어요.

Q.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림이나 글들이 솔직해서 참 좋아요. 자신의 한계, 의기소침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같아요. 어느 날은 잔뜩 구겨진 종이 가 되었다가도 다음 날 햇빛에 보송하게 마른 하얀 이불 같기도 하고요.

A.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그림으로 돈 버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작업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출강도 다니고 일러스트외주작업도 하죠. 남편 도움 없이 내가 돈 벌어서 스스로 내 길을 찾고 싶어요.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분명 후회할 거 같더라고요.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 찾은 이 디지털드로잉을 취미로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림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캘리그라피, 사진, 뜨개질 등 취미생활로 끝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시즌제'라고 놀려요. 길어야 3



디지털드로잉 작가의 작업실, 2021년 첫 전시 '시골소녀의 사생활' 작품들.

것이 큰 변곡점이었어요. 그동안은 저 혼자 취미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곳이 없었죠. 인스타그램으로만 소통하다가 공간 전시를 통해서 관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된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분은 구름을 탄 것 같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요.

Q. 그림 속에 늘 혼자 있는 소녀가 등장해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 같기도 하고요.

A. 그림 속 풍경들은 제 어린 시절 마을 뒷산의 숲속 풍경들을 그린 거예요. 시골 동네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주로 혼자 몽상하는 어린이었어요. 하나 있는 오빠랑 놀려고 쫓아다니면 느린 저를 놓고 늘 썩하고 사라졌죠. 그래서 혼자 쓸쓸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뒷산에 혼자 올라가서 앉아 있곤 했는데 그때 풍경을 그림에


있는데 그럴 시간에 뭐라도 더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집에서 계속 혼자 그림만 그리면 그걸로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동에 작업실을 얻게 되었어요. 내 공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작업실이 생기면서 '엄마', '주부'라는 역할을 넘어 작가로서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를 기점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문창과에 가서 글을 계속 써보라'는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브런치스토리에 '평범하지만 평균은 아닙니다'라는 글도 연재하게 되었죠.

저는 저에게 응원해주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응원하고 환호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개월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저를 곁에서 봤을 때 제가 가장 오래 열심히, 즐겁게 집중하는게 그림이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좋아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기도 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아이패드도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준 거여서 특별해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세령 작가는 살아내는 동안 마음에 스민 경험과 감정, 세상에 건네고 싶은 말을 더는 가두지 않았다. 글이나 그림, 어떤 형식이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갈망이 계속 길을 만들어 낸다. 그가 만들어낸 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표현을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최세령 작가는 분명 말 없는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다. 

> 최세령 작가 @studio.haebom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싱그러운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5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여름맞이 되살림 장터

나에게 목은 집이 새 물건으로 되살려지는 시간! 이웃과 함께 마음도 주고받으며 다양한 물건들 중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방앗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진행정보: 5월 31일 (토) 오후 2시~6시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슬램덩크', '스타 이즈 본', '타인의 삶'을 함께 본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14일, 21일, 28일 (매주 수) 오후 2시

저속노화밥상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준다.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15일, 22일, 29일 (매주 목) 오후 6시

참가비: 5,000원

축구보는 짹짹이들 축구다큐

청춘방앗간에서 '화요 축구다큐'를 길잡이 삼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봄에는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20일, 27일 (매주 화) 오후 7시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5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영어회화 무료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영어 강사인 켈빈이 영어회화 무료 클래스를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참고하여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17일 (토) 오후 2시, 5월 24일 (토) 오후 1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투썸플레이스 건물)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 양식 작성 후 제출

참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5월.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5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5월 17일 (토) 오후 2시	대지에 입맞춤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5월 24일 (토) 오후 2시	애프터 씬	드라마	12세 관람가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5월 31일 (토) 오후 2시	한섬가이즈	코미디	15세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5월 27일 (화) 오후 7시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삼례문화예술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

삼례문화예술촌이 5월 3일 (토)부터 9월 29일 (일)까지 '2025년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 생명력, 아지랑이와 같은 향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을 개최한다. 나눔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의 무상대여와 전문 연구원들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아지랑이와 같이 피어오르는 향기'를 주제로 장애 예술인 작품 2점, 미디어아트 1점을 포함해 총 3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삼례문화예술촌)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2026년 청년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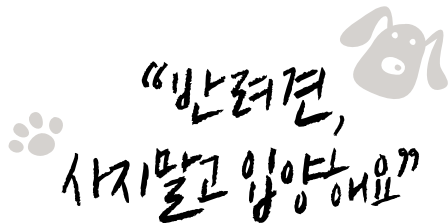
완주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군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6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공모자격: 청년분야: 18세 ~ 45세의 완주군 청년

공모기간: 5월 31일 (토)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기간: 2026년 3월 ~ 11월

공모방법: E-Mail 또는 방문 접수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헤이 (♀)
검은 털이 매력적인 헤이!

-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13kg
나이: 3살 추정
건강상태: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 복용 중, 입양 후 중성화 필수
헤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으며 대견관계도 아주 좋다. 이런 헤이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키워드 -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수업

조병영 외 씀 | EBS북스 | 468쪽 | 2022 | 19,000원

읽었다는 착각



출판업계는 몇십 년째 불황이고, 요즘 세대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걱정이 많다. 이 와중에 동네책방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읽어내는 활자 양은 종전보다도 더 많아졌다. 매일 들여다보는 휴대전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사실 다 활자다. 다만 그 활자들이 이루는 문장의 질과 내용이 중요할 터. 그 수 많은 글들이 나에게 켜켜이 쌓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책이나 영화는 공을 들여 읽거나 보는 대신 3분, 15분 요약본을 찾고, 어찌저찌 원본을 다 읽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일보다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씹어주는 내용을 받아먹으며 내가 소화한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간다. 시간을 들여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쓰는 노력보다 챗GPT에게 적절하게 질문하여 그럴 듯한 답을 뽑아내는 방법이 공유되는 세상이다. 이제는 무턱대고 시간과 공을 들이는 일이 아둔하고 미련한 일처럼 치부되곤 한다. 궁금한 정보를 검색해 글을 읽다 보면 홍보 글이고, '뉴스'라는 인터넷 기사는 찌라시에 가까워 안 읽는 게 정보 판단에 유리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문해력을 기르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읽었다는 착각>에서 안내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고 연습해보자. 400쪽이 넘는 양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성인 문해력 테스트로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글, 업무 메일, 계약서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긴 글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워크북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 지성(intelligence)은 분명 다르다. 산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지식으로, 나만의 지성으로 만들어 내는 시간은 통과해야 할 예외 없는 과정이다.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들을 조합한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을 발휘하는 건 지성의 영역이다. 전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후자는 저마다 자기만의 수련이 필요하다. 동시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별력은 '읽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 '읽어내는 시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레

#71 이제라도 비결



요즘 새벽에
고사리도 꺾고
요기도 열심하군!
대단하네?!

동 부지런해졌지.

무슨 일이야?
비결이라도 있어?

... 음...
햇빛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지런해졌어.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코스프레 퍼레이드부터 오페라까지 완주 어린이들 신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3일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가 완주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렸다.

‘미래의 완주 히어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5,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석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300명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변신하여 참가한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눈길을 끌었다. 어울림마당에는 미래존, 행복존, 도시존으로 구성된 체험 90여 개 부스가 마련되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풍성한 체험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그림 그리기 대회, 아동 권리 골든벨, 어린이 바둑 체험 및 대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한편,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익숙한 전래동화인 ‘공쥐팔쥐’를 재해석한 오페라 ‘신공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된 이야기와 생생한 악기연주, 아름다운 아리아가 어우러지며 색다른 예술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이어진 6일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어린이 잔치가 열려 2,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찾아가는 예술극장 비보잉·비트박스 공연, 마술쇼, 버블쇼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공기놀이, 신발 던지기 등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놀이마당 이벤트가 더욱 유쾌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특히, 직접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드론 월드컵, 솜사탕 꾸미기, 우드카빙 공예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삼례문화예술촌의 대표 어린이 간식인 ‘아이스퐁당’의 아이스크림과 컵 과일, 삼례시장의 대표메뉴인 통닭을 활용한 콜팝 등 풍성한 먹거리 덕분에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반짝반짝고마워_지름27cm_mixed media_2025

윤대라 개인전 <양생원과 비키니소다>

- 전시기간 : 2025년 5월 17일(토) - 7월 8일(화)까지
- 장소 :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실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단순함의 깊이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7) 파트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영똥한 계엄에 대한 탄핵으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기(法妓)들의 말도 안 되는 반란으로 또다시 오리무중의 혼돈사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구적 이성'은 권력이나 돈에 굴복한 학자들의 전유물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학기(學妓)들보다 법기들의 건강부회가 훨씬 더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야후(Yahoo) 인간에 대한 혐오증이 몽실몽실 피어나는 세월입니다.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이 화사한 봄날을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이 저 앞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몸을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세계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지향이라 했습니다. 바깥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마음 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복잡한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본래의 마음속을 살필 일입니다.

이럴 때 또 음악만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르보 파트트(Arvo Pärt)의 [거울 속의 거울](Spiegel im Spiegel)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두 개의 거울을 마주보게 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그 끝없이 되비치는 상처럼 깊고 심오합니다. 10분 남짓한 이 곡은 반복과 침묵, 여백의 미학을 통해 듣는 이의 내면 깊숙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종종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되어 줍니다.

이 곡은 에스토니아 작곡가 파트트의 대표작으로 197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곡으로 만들어졌지만 유명해지면서 첼로, 비올라,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와 함께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곡 역시 그가 창안한 '틴티나불리'(tintinnabuli)라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틴티나불리는 종소리를 뜻하는데 [거울 속의 거울]에서도 맑은 종의 잔향처럼 음이 조용히 되울립니다. 오른손 피아노는 3음으로 구성된 단순한 반주를 반복하고 왼손은 아르페지오로 유려하게 흘러갑니다. 현악기는 느릿한 호흡으로 음표들을 길게 끌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절제된 멜로디를 천천히 이어갑니다.

곡의 제목처럼 음악은 무한히 반복되며 듣는 이는 끝없이 반사되는 거울 속을 걷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번잡한 현실 속에서 거울 속의 거울은 단순함을 매개로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주며 내면의 숨결을 되찾게 해줍니다.

[거울 속의 거울]은 슬픔의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슬픔 혹은 분노를 있는 그대로 가만히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 음악을 듣는 것은 무언가를 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되찾기 위한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반복되는 멜로디는 마치 "괜찮아, 괜찮아" 하는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눈물 많은 하루 끝에 듣는 이 곡은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울게 하여 조용한 평화에 깃들 수 있게 해줍니다.

불안하거나 지친 순간에도 이 음악은 멈춤의 시간으로 이끌어 줍니다. 번잡한 일상속에서 호흡을 놓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천천히 숨 쉬게 하는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명상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체험이라 할 만합니다.

아르보 파트트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음악은 백색광에 비교할 수 있다. 백색광은 모든 색을 다 품은 빛이지만 그 색들을 분리해서 눈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프리즘의 몫이다. 음악을 듣는 이의 마음이 곧 내 음악의 프리즘이 될 수 있다."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자주 잘 들어야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연둣빛 부활에 대비되는 인간의 황무지와 같은 상황, 이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세월이 지나 진한 생명의 계절 오월입니다. 점점 짙어지는 푸름에 힘입어 우리 민주주의의 부활도 꿈꾸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거울 속의 거울]이 조용하지만 절긴 응원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망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비봉면 피클볼 전용 구장 곧 준공

비봉면에 완주군 최초·최대 규모의 피클볼 전용 구장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천호성지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성식)이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2024년 3월에는 완주피클볼클럽이 공식 출범했다.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피클볼 전용 구장은 평면 고르기 공정, 하도·중도 공정, 퍼즐러 건립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지난 4월 30일 코트 10면이 완공됐다.

현재는 비품 정리함, 안내 표지판 등 세부 시설을 갖추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약 한 달 후 열릴 준공식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동호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김영혜의 **영화산책**
(4)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김용진 감독, 김용진/봉지욱/한상진 주연, 2025, 한국

신록이 눈부신 2025년 4월, 다큐멘터리 영화 한편이 개봉되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만든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다.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기자가 감독하고 본인을 비롯한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한상진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후원 회원으로서의 의무감에 보러 가기는 했지만, 기자들이 만든 시사물인 만큼 '당연히' 심각하고 지루하고 무거울지 알았다. 그런데 웬걸! 웬만한 스릴러물 못지않은 속도감과 긴장감, 거기다가 유머 감각까지 겸비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그가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해내는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여러 가지 범법행위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소송 끝에 받아내 폭로했다. 대장동 비리의 본질도 추적해 검찰의 편파 수사를 들춰냈다(메가박스 영화 소개 중 인용).

이쯤 되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힐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뉴스타파의

세 기자들은 윤석열의 앙심에 찬 보복에 시달리게 된다. 집과 사무실에 대한 불시의 압수수색과 끝없이 이어지는 재판...

밀폐된 조사실에서 검사와 단둘이 앉아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에서 나온 포렌식 결과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나온 한상진 기자는 비 오는 검찰청 앞길에서 주저앉아버린다. 우산도 퍼지 않고 비를 맞으며 그는 한탄한다.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다니... 당시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하던 그는 마침내 카메라를 앞에 두고 눈물을 보인다. 단단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기만 할 것 같던 그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자 영화관 안에는 깊고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그 정적이 너무 생생하여 피부로

와닿을 정도이다.

영화가 예상외로(!) 흥행하자 세 기자는 신이 나서 GV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호된 고난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는다. 김용진 감독은 자신의 영화연출가로서의 재능을 뒤늦게 발견한 것을 자랑하고, 한상진 기자는 자신의 눈물연기가 '메소드 액팅'(method acting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연기하는 연기기법)'이었다며 너스레를 떨고, 봉지욱 기자는 김용진 감독이 카메라를 의식하며 멋진 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답살 돋았다고 편찬을 준다.

무도한 정권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또 다른 탐사보도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구나!"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새어 나왔다. 영화 중간에 김용진 기자가 어느 모임에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지는 싸움에 익숙하다. 거대한 권력 앞에 싸워봤자 어차피 지겠지 하는 패배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 소식

더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소양면 주민활동 마무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이 2025년 거점시설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 소양면의 주민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소양면 주민들은 그간 4개 영역(배후마을서비스, 주민소모임, 거점시설활성화, 주민역량강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다수의 주민활동가가 배출되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번째, 배후마을서비스 영역에서는 마을돌봄활동가 5개 조가 총 10개 마을을 각 6회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한 마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반장 5개 조가 소양면 전체(총 47개) 마을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분리배출, 불법

소각 금지, 쓰레기 배출방법 등 마을환경교육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주민소모임 영역 중 마을문제해결형은 소장금(청소년 먹거리 돌봄), 아름다운 세상(환경개선), 클린공연(환경개선) 등 3개가, 건강·문화·교육형은 풋살, 족구, 걷기, 댄스, 탁구, 요가, 태권도, 뜨개, 바느질, 캘리 등 10개의 소모임이 조직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거점시설활성화 영역에서는 주민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멋진 대한민국(어린이 책친구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일제의 수탈, 독립운동, 광복, 전



소양면 주민소모임 중 걷기모임의 활동 모습.

쟁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삼례에 솔촌과 완주군의회를 탐방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네 번째, 주민역량강화 영역에서는 마을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제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소양면에서 진행된 주민활동의 성과를 확인하는 결과보고회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사보다 OO

농/촌/별/곡



차 남 호

풀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무꽃이 봄 들녘 허리를 눈부시게 수놓았다면 지금은 풀꽃이다.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 잔디밭 가장자리, 마당 언저리에 나지막이 피어나는 수레국화, 데이지, 꽃양귀비, 금계국... 길옆에는 이제 간드러진 풍경이 펼쳐지겠지.

농사철로 들어섰건만 농사꾼은 꽃 타령에 넋이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가을부터 꽃씨 뿌리고, 모종 옮겨심으며 짝이 텃나, 뿌리를 내렸나 애를 태워왔더랬다. 겨울을 나고 날이 풀려 쭉쭉 올라온 꽃자루마다 망우리가 맺혔다. 얼마나 기특하던지.

그런데 그리 애지중지하던 꽃줄기가 짓눌리고 말았다. 범씨를 담그던 날, 염수선(소금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작업에 열중하던 이들이 무심결에 꽃 무더기를 밟고 지나간 것. 그것도 몇 차례나. 그때마다 내 몸뚱이가 짓밟히는 듯 가슴이 움찔움찔하는 거다. 이러다간 죄다 결판나겠다 싶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주의신호를 보내야 했다. 이거 좀 예민한 거 아니냐고? 실제로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가 더러 있었다. 벼농사 짓는 농부라면 '꽃보다 범씨' 아니냐고.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순간 범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 범씨보다 꽃이 더 중요하다면 농사꾼인가, 한량이거나 원예가인가. 나는 정녕 무엇인가.

안 그래도 스스로 의아스럽던 참이다. 일단 벼농사만 짓는 농부다. 벼농사 작기는 반년(5월~10월)이니 가을부터 봄까지 나머지 반년은 농한기인 셈이다. 농사철이라 해도 모내기과 가을걷이 같은 농번기를 빼고는 한갓진 편이다. 결국 "농사보다 OO"이 나를 규정짓는 셈이다. 이른바 '반농반X'를 넘어서는 그 무엇.

얼마 전 한 술자리에서 "따지고 보면 출가를 한 셈이고, 그렇다면 '사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다들 손뼉을 치며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왜 아니 그렇겠나. 추워지면 '동안거'에 들어문을 닫아걸고, 한여름 폭염에는 논배미야 어찌됐든 '하안거'인 듯 납작 엎드려 있으니 말이다. 그 안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쩔

든 추위와 더위 속에 수행이라면 수행이겠다. 이렇게 보면 농사꾼인지, 한량인지, 사문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아니면 그 모두인지 스스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순간 분명한 것은 농사철이 되어 나는 다시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 점에서 나는 농사꾼인 게 틀림없다. 이미 꽃줄기가 짓밟히는 아픔 속에 범씨를 담그고 축을 띄워 모판에 파종하고 싹을 올려 못자리에 앉혔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고산권벼농사두레 두레작업으로 해치웠다. 지금은 벼모가 못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게부터 벼두레 경작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두레작업에 과부하가 걸렸더랬다. 고심 끝에 벼두레 공동경작지에서 우리 논배미 대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그에 따라 벼두레 차원의 전체 경작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당연히 두레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여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여 올해 두레작업은 더 느긋하면서도 여느 해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니, 생주이멸(生住異滅)이니 들먹일 것도 없이 세상일이란 본시 덧없는 법이다. 그러니 찰나 뒤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과 김규성 의원은 5월 8일 경천면의 한 음식점을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소통의 자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농어촌기본소득을 주제로 주민들이 가진 기대와 우려, 현실적 제언 등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재원 마련과 형평성, 운영상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제시했다.

두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기반"이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주민 의견 청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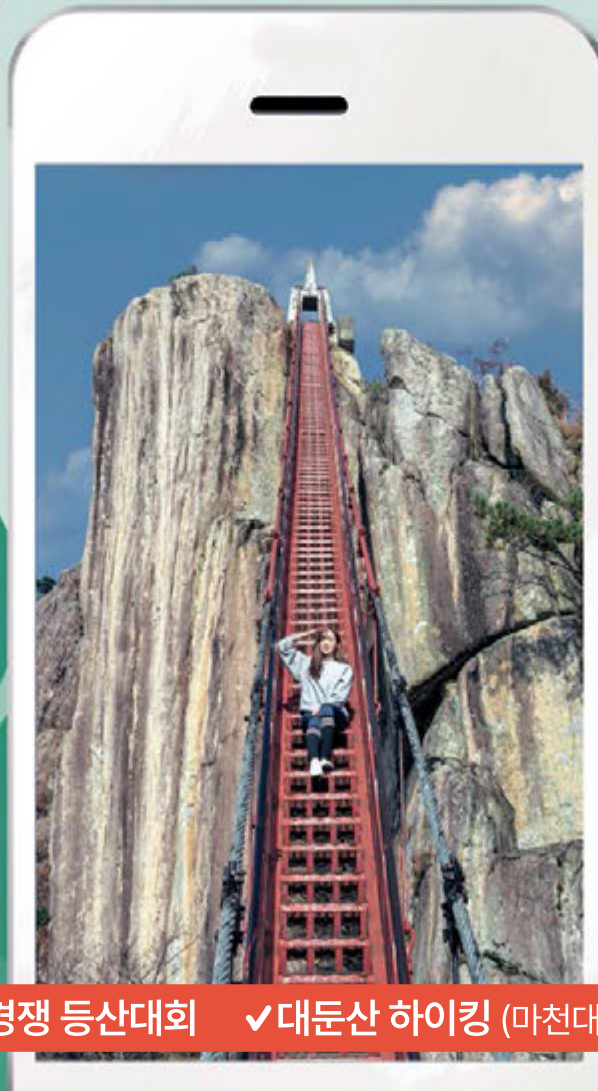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완주

대둔산 2025 축제

6.7^(토) - 6.8^(일)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

너의 도전 앨범에 저장해 보, 대둔산 모먼트!



- ✓ 대둔산 비경쟁 등산대회
- ✓ 대둔산 하이킹 (마천대, 은하수 둘레길)